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비용구조 개선 필요



CONTENTS

01

포커스

- 바이오의약산업, 비용구조 개선 필요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GAO, 백신 접종에 대한 디지털 증명서 환경 분석 4
 - 영국 UKR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3천만 파운드 투입 4
 - 인도 헬스테크 시장, '33년 5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전망 5
 - BMI 기술, 전 세계 스타트업이 다양한 형태로 상용화 5
 - 웨어러블 생체전자공학 기술, 높은 성장 전망 6
 - 글로벌 빅테크기업, 공공보건분야를 대체하기 어려울 전망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속 승인 7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저소득 국가들에게 5억회분의 Pfizer 백신 제공 7
 - 영국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격차 극복 필요 8
 - 스위스 Abbott, '21년 실적 하락 전망 8
 - 유럽 의료기기산업, 선택적 수술과 관련된 시장 회복 예상 9
 - 화장품 트렌드, 편의성 및 다목적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9
 - OECD, COVID-19 이후 정신질환 환자 급증 추세 분석 10
 - 줄기세포, 승인받지 못한 치료에 대한 글로벌 차원 논의 필요 10
-



바이오의약산업, 비용구조 개선 필요

첨단신약의 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시민 사회의 개입으로 바이오의약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오의약 업계는 R&D의 효율화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

[1]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첨단과학

■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과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이 요구

-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과거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첨단 신약의 높은 가격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
 - * COVID-19 상황은 많은 나라들을 경제 불황에 빠트리고 사회적 긴장과 국수주의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의약 산업을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도 작용
- 그 결과로, 첨단신약을 둘러싼 환경은 수익성, 적절한 가격,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수요와 사회적 니즈에 부응할 필요성이 요구
- 첨단과학에 기반한 신약은 △과학적 신규성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던 니즈 △기술적 수렴이라는 3가지 차원별로 대응 방향 모색

□3가지 차원에서 평가되는 글로벌 신약 개발 환경□

차원	가설	대응 방향
과학적 신규성	• 과학적 신규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질병과 치료 영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	• 새로운 메커니즘/작용 기전 • 새로운 치료 방법 • 새로운 과학적 플랫폼
충족되지 못한 니즈	• 현재 충족되지 못한 니즈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	• 치료받지 못했던 인구 • 효과성의 개선 • 합병증의 감소
기술적 수렴	• 현재의 정책 변화와 제품 개발에 미치는 기술 충격의 전체 하에서, 기존 의약품과 미래에 실현될 의약품이 얼마나 공존할 수 있을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	• 디지털 의약품 • 동반진단*에 대한 의존도 제고 • 치료제와 기술에 대한 공동 승인 • 직접 소비자 테스트의 가능성

*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is)은 특정 치료제에 대한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 기술로, 치료제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바이오마커(특정 DNA나 RNA 등의 생물학적 지표를 의미함) 보유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의미

- 첨단과학 기반 신약은 '21~'26년 기간 동안 바이오의약품 매출액 증가율 전망치 81%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6년까지 893종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
- 첨단과학 기반 신약의 순현재가치는 전통적인 의약품의 순현재가치보다 69%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면역학과 심장의학이 첨단 과학 기반 신약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첨단과학 기반 신약은 기업 인수합병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했는데, 의약업계의 인수합병 금액의 80% 이상을 신약 관련 인수합병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진행된 새로운 치료제 관련 인수합병 중에서 신약 관련 인수합병이 76%를 차지
- 첨단 과학 기반 신약을 구성하는 3가지 차원의 향후 5년간 증가율을 보면, 과학적 신규성은 6% 증가, 충족되지 못한 니즈는 10% 감소, 기술적 수렴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 첨단 신약의 성장은 기술적 수렴에 의해 촉진될 것으로 전망

[2] 첨단 과학기술이 직면하는 수익성의 문제

■ COVID-19로 인해 의약업계 민간 부문의 변화는 가속화되었으며, 관련 정책과 규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약업계 전체의 수익성과 비용 측면의 문제가 제기

- 업계의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신약 개발에 따르는 기대 마진은 평균 6%, 특히 항감염제 부문은 11.6%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마진 축소의 예외 영역으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시장을 주도하는 치료제나 치료 방법의 시장 수명은 '00년의 10.5년에서 '17년 5.1년으로 51% 감소
- 미국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의약품의 실거래가(net price)는 1~2%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권장가격(list price)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 실거래가와 권장가격 사이의 간극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이외의 주요 시장에서도 의약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추세

- 유럽 시장의 경우, 첨단 의약과 치료에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헬스케어 관련 예산의 포괄범위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모색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협상에 의해 신약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며, 영국은 '국립보건우월성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자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의해 결정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
- 개도국들의 공공 보건 프로그램은 주로 복제약의 공급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의약품 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들 국가에서 헬스케어 정책의 개선 방향은 의료비 지출 비용의 감소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서로 맞물려 있음

- 중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규제와 보조금 체제의 개혁을 추진 중이며, 신약과 비용 대비 효용이 높은 기존 약과의 수요 갭을 줄이는 것과 신약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중국 국민들이 신약에 빠르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

*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험청은 전국 통합 의약품 조달 시범 계획을 통해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지방별로 나뉘어진 의약품 조달 창구를 일원화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

■ 지금까지 바이오의약 업계는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지만,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들의 비용 절감 압박이 커짐에 따라, 많은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라는 명분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구조는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은 정부가 의약품 제조업체와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가 인상률의 상한선을 두는 한편, 제조사와 납세자들 간의 비용 분담 원칙을 수립하는 ‘국제의약품 가격참조모델(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 models)’을 의회에서 제안
- 영국은 새로운 예산 영향 모델을 사용하여 의약품 가격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으며, 신약의 경우 가격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때까지 의료보험을 미적용
- 중국은 의약품 가격 협상을 통해 평균 44% 가격을 인하했으며, 전 세계에 신규 의약품 가격 참조 모델을 배포

[3] 수익성 높은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조건들

■ 바이오의약업계는 수익 항등식의 양대 요소인 비용과 매출액 모두를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 구조로 변모되어야 하며, 신약의 R&D와 상업화 속도를 더욱 높이고 신약 개발과 상업화 과정의 전반에 걸친 전략 혁신을 통해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비용 절감 방안 모색 필요

- 새로운 치료제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되기까지는 26~67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20년 기준으로 가상 임상 실험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이러한 수치가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 기반의 신물질 발견을 위해 딥러닝과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이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 기술과 하이브리드 형태 혹은 분산된 형태의 임상 실험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모색

*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임상시험은 약 1억 4,6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가능

- 규제 혁신은 보다 효율적인 관행을 수립하고 신약의 안전성과 위험간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의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용 절감은 디지털 마케팅 노력과의 재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진 필요

[Accenture, 2021.05.25.; Businesswire, 2021.06.01.]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GAO, 백신 접종에 대한 디지털 증명서 환경 분석

■ 미국 연방감사원(GAO)은 디지털 증명서 발급을 통해 질병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여행이나 다른 경제 활동의 재개를 안전하게 도모하기 위해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에 대한 기술, 작동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술표준, 기회와 도전 등을 분석

-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백신 증명서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나 기술 표준이 형성되는 단계
- 디지털 증명서의 발급과 운영은 기존 종이 형태의 증명서에 비해 이 디지털 증명서는 위조가 어렵고 효율적이며,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데이터 보안 수준이 높다는 장점 보유
- 개인건강데이터의 보호와 법적 안전 조치, 기존의 건강 및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은 디지털 증명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공 보건에 이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1.06.03.]

영국 UKR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3천만 파운드 투입

■ 영국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의 하위 기구인 ‘엔지니어링 및 물리학 연구 위원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는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에 3,080만 파운드를 투입

- 대장암이나 피부 종양 여부를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테라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는 첨단 이미지 센서기술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진단하는 기술 등 20개의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에서 4개의 프로젝트는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MRC)와 공동으로 자금지원
- 세부 항목별로 보면, 테라헤르츠파 주파수 대역의 센서를 이용한 진단과 항생제 내성을 막기 위한 면역체계 연구에 1,450만 파운드가 지원되며, EPSRC와 MRC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셀프 모니터링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4개 프로젝트에는 160만 파운드가 지원
-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수학 및 공학, 정보통신 및 물리학 분야의 연구에 EPSRC가 7백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기타 헬스케어 진단기술과 포용적 헬스케어 솔루션 및 환경 구축 등에 570만 파운드 지원

[UKRI, 2021.06.07.; University of Leeds, 2021.06.05.]

인도 헬스테크 시장, '33년 5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전망

■ 인도의 원격의료, 온라인 약국, 피트니스와 웰니스, 헬스케어 IT, 의료 정보 분석, 홈 헬스케어와 개인 건강 관리 등으로 구성되는 헬스테크 시장은 '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하고 '33년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업가치 평가 등 금융 부문 조사 전문 기관인 RBSA Advisors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헬스테크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20억 달러 수준으로, 인도 전체 헬스케어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인도의 헬스테크 시장은 온라인 약국(E-pharmacy) 시장 규모가 7억 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B2B 헬스테크 시장이 6,020만 달러를 차지
- 또한 B2B 의약품 공급 시장이 2,880만 달러, 기타 헬스 테크 서비스가 1억 달러, 원격진단 7,000만 달러, 원격상담 4,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Business Today, 2021.05.26.; Express Healthcare, 2021.05.24.]

BMI 기술, 전 세계 스타트업이 다양한 형태로 상용화

■ 뇌와 기계를 연결해 컴퓨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지칭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 Machine Interface, BMI)'기술은 '브레인테크'로도 불리며, 이미 BMI 기술을 상용화한 경우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

- BMI는 수술로 뇌에 센서나 반도체 칩을 이식하는 '침습형'과 수술이 불필요한 '비침습형' 기술로 나뉘며, 상용화는 대부분 비침습형 기술이 차지
- 프랑스 NextMind社는 BMI 단말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뇌파를 탐지해 블루투스로 PC에 전송하면 사용자가 VR·AR용 HMD에 표시되는 3D 비디오 게임 등을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생각만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
- 미국 Kernel社 역시 헬멧형 BMI 단말로 측정된 뇌파를 우울증, 치매 등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등 주로 의료용 기술을 개발 중이며 사용자의 뇌파를 분석해 당시 기분에 가장 잘 맞는 TV프로그램이나 서적을 추천하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도 기획
- 미국의 스타트업 Dreem社가 개발한 헤드마운트형 BMI 단말은 뇌파를 측정해 전송하면 PC에 설치된 전용 앱이 사용자의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BMI 단말이 전송한 미세한 음파가 골전도 기술로 뇌의 특정영역을 자극해 수면의 질을 개선

[KDDI 総合研究所, 2021.06.09.; 日経デジタルヘルス, 2021.06.02.]

웨어러블 생체전자공학 기술, 높은 성장 전망

■ 미래의 의료시스템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시장은 '25년 85억 달러의 규모를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심장박동기, 뇌전증, 파킨슨병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 분야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서구에서 37초마다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인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에 대해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전기 파동을 전달하는 기기를 무릎에 부착하여 심부 동맥의 혈액을 빠르게 심장으로 밀어내는 장치가 개발
- 새로운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 생체전자공학 기반의 메드테크 기업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지원을 얻는 것과 의료기기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임상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기존 공급망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력들이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을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Open Access Government, 2021.05.18.; Medical Device Network, 2021.05.08.]

글로벌 빅테크기업, 공공보건분야를 대체하기 어려울 전망

■ COVID-19 팬데믹은 빅테크기업이 공공의료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기술이 강력한 공공기관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시켰으며, 그에 따라 공중보건투자는 기술회사가 하는 일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의 COVID-19 방역 실패는 수십년에 걸친 공공의료인프라에 대한 예산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기술 인프라에 의존해야 하는 보건 당국의 역량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팬데믹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을 참여시켰으나 혁신 성과는 미미

* 구글(Google)의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20년 3월부터 시범 COVID-19 진단 시스템을 개통하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5,5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와 저소득층은 아예 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 정부와의 계약은 '21년 2월에 종료

- 빅테크기업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 훨씬 전부터 보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전통적인 공공의료 및 보건기관들에 비해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공공선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공공보건의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취약점과 위험에 노출
- 따라서 '공공선을 위한 데이터(Data for Good)' 시각에 입각한 접근법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보건의 목표는 환자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제고에 두는 것이 중요

[The Verge, 2021.06.03.; The Mercury News, 2021.02.25.]



4대 보건산업

미국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속 승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젠(Biogen)사와 일본 에이자이(Eisai)사가 공동개발한 동종계열의 최초 알츠하이머(Alzheimer) 질환 치료제 아듀헬름(Aduhelm, 성분명 aducanumab)을 승인하였으며 이 약물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

- Aduhelm은 심각한 수준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질병에 현재의 치료 방법보다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는 치료제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인 신속승인제도를 통해 승인

* 신속승인제도(Accelerated approval pathway)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지표변수(surrogate endpoint)가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될 경우 해당되는 치료제를 승인하는 제도로, 승인 이후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

- Alzheimer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느리게 파괴하는 비가역적이고 점진적인 뇌 질환으로 미국인 620만명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으며, 3,48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Aduhelm은 유의미하게 뇌 시냅스(synapse)를 파괴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침전물을 감소
- 이번에 FDA가 신속 승인한 Aduhelm은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 승인한 최초의 치료제로, 특히 '03년 이후 병태생리학적(pathophysiology) 기전에 근거한 최초의 치료제로 평가

[FDA, 2021.06.07.; Biopharma Dive, 2021.06.08.]

미국 바이든 행정부, 저소득 국가들에게 5억회분의 Pfizer 백신 제공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총 5억회분의 화이자(Pfizer) 백신을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을 포함한 92개 저소득 국가들에게 제공

- 미국의 5억회분 백신 제공은 한 국가가 실행하는 백신 공여 물량 중 최대이며, COVID-19로부터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4.5개월 만에 미국 성인의 64%가 최소한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일일 사망률은 팬데믹 발생 이후 최저
- 미국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여 계획은 '21년 8월부터 선적이 시작되며, '21년 말까지 2억회 분의 백신이 전달되며, '22년 상반기까지 추가 3억회분의 백신이 COVAX를 통해 전 세계의 저소득 국가에게 전달될 예정

[White House, 2021.06.10.]

영국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격차 극복 필요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COVID-19 상황에서 원격지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시각과 지속 가능성, 파트너십에 기초한 솔루션 제공을 위한 로드맵 제공이 필요

- 현재 영국에는 1,17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본적인 디지털 숙련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디지털 계층 분화(digital divide)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이외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
- 전례없던 규모와 속도로 확산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진료를 디지털화한 것은 이해가능한 영역이나, 디지털에 의한 의료 영역 확장에 디지털 전달 체계를 고려한 환자 중심적인 방법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영국환자협회(The Patients Association)가 발표한 'COVID-19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헬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료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를 희망
-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병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

[Healthcare Global, 2021.06.06.; Cities Today, 2021.05.18.]

스위스 Abbott, '21년 실적 하락 전망

■ 스위스 기반 진단 및 의료기기 업체 애보트(Abbott)社は COVID-19 진단 기기에 대한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인해 '21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 Abbott사의 '21년 1분기 실적이 집계된 이후 미국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COVID-19 감염률이 급속도로 떨어졌으며, 이는 결국 COVID-19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중
- '21년 초 Abbott는 COVID-19 테스트기기 연간 매출액을 65억 달러로 예측하였으나 '21년 2분기 매출 11억 달러의 저조한 성과를 반영하여 연간 매출액을 40억~45억 달러로 하향 조정
 - *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21년 4월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COVID-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
- 4월 중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COVID-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진단 의료기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Medtech Dive, 2021.06.01.; Abbott, 2021.06.01.]

유럽 의료기기산업, 선택적 수술과 관련된 시장 회복 예상

■ 글로벌 조사기관 프로스틀리반(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서유럽에서 선택 가능한 수술 절차를 위한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연평균 29.2% 증가하여 '23년에는 168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서유럽의 의료기기 시장, 특히 심혈관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 그리고 로봇 보조 수술 기기와 같은 의료기기는 COVID-19에 따른 선택적 수술 연기 조치의 영향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선택적 수술(elective procedures)은 70~80% 가량 수술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수술 건수 역시 '20년 기준으로 COVID-19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에 비해 4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선택적 수술의 회복세 중 최소 침습 수술과 로봇에 의한 수술이 효과적이며, 수술 대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팬데믹 이후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 전략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
- 3D 프린팅, 수술 훈련 및 정밀수술을 위해 햅틱 기술을 결합한 가상 및 혼합현실 기술 등의 신세대 기술이 도입되면서 의료기기 시장은 '23년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의료기기 간의 연결성 제고나 오픈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추어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

[PR Newswire, 2021.06.07.; MobiHealth News, 2021.06.10.]

화장품 트렌드, 편의성 및 다목적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프랑스 화장품 유통업체인 세포라(Sephora)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스킨 및 헤어케어, 메이크업 제품 모두 사용하기 간단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의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제품들은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복잡한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제품들로, 특히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직접 피부 등을 관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
-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들이 출퇴근과 같은 일상 생활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자기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화장 단계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
-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기울이면서도 사용법이 덜 복잡한 화장품을 찾는 경향을 형성
- Sephora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기 전 10분 정도의 관리만으로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데, 특히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피부 상태를 반영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Cosmetics design- asia, 2021.05.31.; Women's Health, 2021.04.17.]

OECD, COVID-19 이후 정신질환 환자 급증 추세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으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 OECD에서 발표한 'A New Benchmark for Mental Health Systems: Tackling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Mental Ill-Health'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는 투자부족으로 인해 OECD 회원국에서도 충족되지 않는 의료니즈가 여전히 많은 상황
- 팬데믹 이전부터 약 2명 중 1명이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안고 생활하고 있지만 COVID-19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안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2배로 증가
-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4.2% 이상으로, 일부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이지만 3분의 1 이상은 고용률 저하와 생산성 저하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러한 비용은 부분적으로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
-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나 성과를 수집하고 있는 국가는 8개국뿐이고, 지난 10년간 정신의료에 대한 지출을 늘렸음에도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오히려 하락

[OECD, 2021.06.08.; 読売新聞, 2021.06.19.]

줄기세포, 승인받지 못한 치료에 대한 글로벌 차원 논의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줄기세포 치료산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적 효과나 치료의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혹은 줄기세포 유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병원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

- 미국의 경우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가 연간 6만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승인 줄기세포치료가 범람

* '19년 기준으로 줄기세포와 조직을 사용하는 글로벌 재생 의약품 시장 규모는 130억 달러에 달하며, 1,200개 이상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초기 단계의 치료 연구에 제한되는 실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모의 대응이 필요하며, 세계 각국이 규범 및 관행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검토와 이해 공유가 필요한 상황

[Baker Institute, 2021.06.09.; Stem Cell Report, 2021.06.08.]